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33〉 광주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

"책 향기 솔솔 나는 '멋진 세상' 만들어 봐요"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어 너무 좋아요."

"가까우니까 자주 와서 책도 많이 읽고 친구들과 조금은 떠들면서 놀 수도 있어 좋아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살고있는 서안나(태봉초 3년)양과 친구들은 최근 '멋진 선물'을 받았다. 지난달 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연 것.

개관 첫날부터 도서관을 찾았던 안나양은 '여우의 전화 박스', '노란 양동이' 등 벌써 몇 권의 책을 읽었다며 자랑하기 바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인근에 문을 연 바람개비도서관(관장 박재춘) 입구 계단엔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바람개비가 아이들을 맞는다. 지난달 30일 개관식을 가진 바람개비도서관은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광주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광주시립도서관이 진행하는 나눔드리 책방 등이 대표적. 그 가운데서도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힘을 합쳐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 밀착형 도서관 인기

도서관 개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광주 지역 사회단체인 '광주시민센터'다. 지난해 광주시민센터 서구 지부가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북구지부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두번째 도서관을 오픈했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뗀 바람개비도서관은 무엇보다 용봉동 주민들이 중심이 돼 꾸려진 지역 밀착형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도서관 공간은 용봉동에서 20여년 가까이 영암마트를 운영중인 김성진 사장이 무료로 제공했다. 최근 새롭게 건물을 올린 김 사장은 영암마트 2층 50평 공간을 선뜻 내놓았다. 언제나 '나눔'에 대한 생각을 해왔었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흔쾌히 도서관으로 활용토록 했다.

공간이 확보되면서 도서관 준비팀은 바쁘게 움직였다. 10월 한달 동안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서관 엄마학교'를 열었고 배봉기(동화작가), 정봉남(아이숲어린이도서관장)씨 등이 '책 읽기의 바른 이해'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도서구입 기금 마련을 위해 하루밥집도 열었다.

1일 문을 연 광주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은 지역민들이 직접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지역 밀착형 민간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엄마 도서관지기 자원봉사

9월부터 11월까지 열렸던 광주비엔날레를 통한 책 확보에도 나섰다. 비엔날레가 진행한 시민사회 프로젝트인 '인연복덕방'을 통해서였다. 책 읽어주기 등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권을 구입했고, 비엔날레를 찾은 이들이 전해준 총 250여권 정도를 기증받았다.

현재 도서관이 구비하고 있는 책은 약 1천800권 정도. 박관장이 800여권을 기증했고, 십시일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양질의 도서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도서관 운영은 이제 막 첫발을 뗀 단계라 함께 배우고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해 나가야할 숙제다.

도서관지기로는 용봉동 지역 엄마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6명의 엄마들이 활동중이며 매주 월요일에는 함께 모여 도선관 운영방안 등과 동화 읽기 등 어린이책에 대한 공부도 진행중이다.

"좋은 책 기증해 주세요"

도서관측은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옛날 이야기도 듣고, 놀이도 하는 '도서관에서 자보기'(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중고생 독서클럽 등도 꾸릴 예정이다.

"엄마들은 아이에게 좋은 책을 늘 읽히고 싶어하죠. 저희 동네 엄마들이 일곡도서관까지 가서 아이들 책을 빌리곤 하는데 차가 없으면 참 다니기가 불편해요. 집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아이들도 책과 훨씬 친해질 것 같고."

도서관지기로 참여하고 있는 주부 구주원씨는 "봉사를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간을 내놓고,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함께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도서관은 의미가 있죠.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지역민들이 모두 함께 그 매개가 책과 도서관이라는 점이죠. 책 한권이라도 괜찮아요. 기증들 많이 해주세요."

박재춘 관장은 "앞으로 도서관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는 문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 : //cafe.daum.net/bookfree. 문의 062-433-12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광주 풍암동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지역 아이들 사랑 '톡톡'

21일 한돌맞이 행사…연극 공연 등 준비

지난해말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4층에 문을 연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광주를 대표하는 민간 어린이 도서관이다.

동화를 공부하던 엄마들이 주축이 돼 오픈한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나 한돌맞이 행사를 준비중이다.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시청자미디어 센터 강당에서 열리는 1주년 행사에는 늘상 동화를 읽어주던 엄마들 대신, 아이들이 엄마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빛그림 공연도 준비중이다.

또 엄마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소재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극단 토박이 단원과 함께 연습에 한창이다.

아이숲도서관은 처음 1천권의 책을 모아 문을 열었고 12월 현재 구비하고 있는 책은 모두 2천 100여권이다. 현재 '3천권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중이며 겨울방학 때부터는 대출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월~토요일(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문을 열며 엄마들 13명이 자원봉사자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평일에는 50여명, 방학 때나 행사를 진행할 때면 20여평의 작은 공간에 100여명이 모일 정도로 지역 어린이들의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 정기적으로 그림책을 공부하는 엄마모임을 열고 있으며 빛그림 공연, 영화 상영,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정봉남 관장은 "현재 순수 후원금만으로 도서관을 꾸리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다"며 "책 구입비의 일부만이라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52-12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